

하느님의 명(命)

중용(中庸)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한,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적당한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용은 중심을 잡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아서 아무런 책임도 없이 어중간한 상태를 취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 안에서 중심을 잡는 것 또는 중심이 잡혀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중용 제1장은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 즉, ‘하늘이 명한 것을 본성이라 한다.’로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본래의 것이 본성 또는 본질인데 중용에서는 우리의 본성이 인(仁), 의(義), 예(禮), 지(智)로 딱 차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중용의 정신은 우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과 더 나아가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용 제1장은 ‘솔성지위도’(率性之謂道)로 즉, ‘그 본성을 따르는 것을 길이라고 한다’로 계속됩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이 딱 차 있더라도 그 좋은 본성인 사랑, 정의, 예절,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본성을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에 이를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집착과는 다른 것입니다. 집착은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욕심에서 오는 것이지만 사랑은 우리의 본성, 즉 하느님께서로부터 옵니다. 또한 가정에는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나 가족 구성원을 대할 때 잘못된 것은 서로 꾸짖고 가르칠 수 있는 의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식별일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제대로 알아야 꾸짖거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 구성원일수록 서로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예의를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정의로움 그리고 예의를 갖추는 데 균형점을 찾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 네 가지 본성이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해 주는 지혜는 하늘의 명(命)을 들음에서 옵니다. 결국, 다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정의 삶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터전이 되어야 하며,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께 귀 기울이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중용 1장 1절은 ‘수도지위교’(修道之謂教) 즉 누구나 쉽게 알고 걸을 수 있게 하는 가르침이 있어야 함으로 마무리 합니다. 우리에게서 교회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이 교회의 가르침이 우리 각자의 가정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1요한 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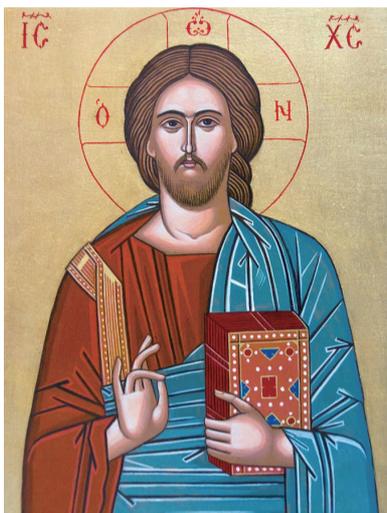
박상용 사도요한 신부
본지 주간



가정교리 (5)

하느님의 계시

하느님은 신성(神性)을 가지신 신(神)이시고 우리는 인성(人性)만을 가진 인간입니다. 신과 인간은 본성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느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도권을 가지신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열어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계시(啓示)라고 합니다. 계시는 라틴어 ‘레벨라시오’(revelatio)를 번역한 것인데, 이는 무대에 가려진 커튼을 열어젖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이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다가가셔서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점차 드러내 보여주셨고,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절정을 이루셨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65항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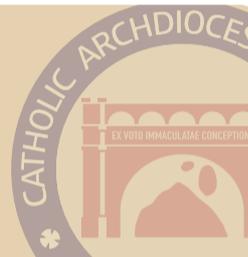
이는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하셨습니다.”(히브 1,1)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즉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그리고 제자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느님을 알려 줍니다. 그리고 성전(聖傳)은 교회의 전통을 통하여 하느님을 알려 줍니다.(81항 참조) 이 밖에도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41항 참조) **금빛**

교황님 한 말씀

“조부모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조부모들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많은 도움,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인생의 모든 경험을 줄 것입니다.

- 2022년 7월 캐나다 사도 순방을 떠나는 기내 기자회견에서 -



이달의 성인

사도 성 안드레아



사도 성 베드로의 동생인 사도 성 안드레아는(Andreas, 11월 30일)는 카파르나움 출신으로 갈릴래아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 중 한 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요한 1,35-42)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성 안드레아는 열두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제자이자 가장 먼저 주님의 복음을 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 안드레아를 ‘맨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의 ‘프로토클레토스’(Protokletos)라고 불렀습니다.

‘남자다운’, ‘용감한’이란 뜻을 가진 이름의 성 안드레아는 복음서에서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주님 승천 후 비잔티움(현 튀르키예 이스탄불)까지 가서 선교활동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파트라이(현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 북부지역)에서 X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으며, 그가 십자가형 앞에서 바친 아름다운 기도가 전해져 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내가 뵈었고 내가 사랑했던 당신, 당신 안에 있는 나를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멘.”

성 안드레아 사도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러시아, 스코틀랜드 등 여러 국가의 수호성인으로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파란색 바탕의 흰색 X자형 십자가를 국기로 사용하는데, X자 십자가는 성 안드레아 사도를 상징하며, 832년 잉글랜드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수호성인으로 모시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에서 유래합니다. **금빛**

이구동성

세계 여러나라 말로 미사경문을 배워 볼까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Thanks be to God.

[영어]

땡스 비 투 갓



神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일본어]

카미사마 아리가 또우고 자 이 마스



感谢 天主。

[중국어]

간시에 티엔 주



Tạ Ông Chúa.

[베트남어]

따 언 쭈어



Gracias a Dios.

[스페인어]

그라시아스 아 디오스

안내

47기 대구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일시: 9.15 ~ 10.27

(매주 목) 19시~22시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

대상: 모든 어머니 ※ 비신자 신청 가능

신청마감: 9.7(수)_선착순 40명

신청비: 10만원

본당 가정위원장 회의

일시: 9.24(토) 14시~16시

장소: 교육원 다동 1강의실

대상: 본당 가정위원장

신청마감: 9.16(금)

신청문의 : 교구 가정복음화국, 053-250-3077

찬미받으소서 (4)

쓰레기 문제



▶ 읽기
21항~22항: 이 세상 곳곳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한때 아름다웠던 풍경이 쓰레기 더미로 뒤덮여 버린 것을 탄식합니다. ... 이러한 문제들은 버리는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버리는 문화는 물건을 쉽게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소외된 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 생각하기

Q. 오늘날 쓰레기 문제의 현실과 특히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늘날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에 따른 대량 폐기의 구조 안에서 쓰레기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암시장이 번성하고 있는데, 선진국이 후진국에 내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려지는 쓰레기 가운데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닐과 페트병 같은 플라스틱 제품들은 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짧은 시간동안 우리의 편의를 위해 쓰이지만, 그것을 처리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분해되기 어려운 플라스틱 쓰레기는 땅에 매립되기

도 하지만 일부는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바다로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은 많은 해양동물들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며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바다 생물의 몸속에 쌓여 먹이사슬을 타고 다시 우리 식탁으로 돌아와 인체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실천하기

교회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9월 1일)부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축일**(10월 4일)까지를 **‘창조 시기’**로 지냅니다. 교황은 이 시기가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기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특별한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금빛**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교황 담화기사(출처 : 바티칸 뉴스)



창조 시기 기도문 (출처 : 찬미받으소서)

생태영성 (4)

境 (불, 경)

“하느님께서서는 물을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창세 1,10)

인간이 없었던 땅과 바다도 하느님은 좋아하셨다.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인간만의 몫이 아니다. 인간의 때가 묻지 않은 땅과 바다에는 하느님의 눈길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하느님의 눈길은 ‘어떻게 이용할까?’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 만족해하셨다. 그리고 그 땅과 바다를 통해 ‘누가, 무엇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만들까?’라는 마음으로 다가갔다. 땅과 바다라는 장소에 하느님의 설계는 그렇게 그려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하느님의 씩씩이는 아름다운 조화였다. 모든 것이 서로 기대어 살 수 있는 땅과 바다는 그렇게 인간에게 다가왔다.

인간 역시 땅과 바다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 좋아하는 밑바탕에는 ‘내 것으로

삼고 싶거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깔려있다. 하느님의 시선인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살아남는’ 사심으로 바라보며 좋아한다. 땅과 바다는 그렇게 인간에 의해 개발되어왔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행복한 장소를 찾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와 투자는 장소를 물색하고, 그것을 통해 행복에 대한 담보를 받아낸다. 인간보다 먼저 행복하신 분이셨던 하느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계셨다. 행복의 장소는 인간이 집착하는 곳과는 다른 곳에 있다.



김효균 마르코 신부 (교구 생태환경위원장)

몸의 신학 (3)

하느님 계획 안에 있는 인간사랑

-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신학’ -

하느님의 생명을 지닌 인간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세상 창조 안에서 인간이 가진 특별한 자리의 근거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기록인 2장에서는 창조의 방식마저도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됨을 보여준다. “그때에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창세 2,7)

하느님을 닮은 모습, 나아가 하느님의 숨(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생명)을 받은 인간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목숨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성**과 **자유**를, **하느님의 영**을 지닌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기에 인간 생명은 여타의 생명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서 야기되는 사형, 낙태, 자살, 안락사, 전쟁 등과 같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형태의 행위나 결정도 수용될 수 없다. 그것은 하느님의 생명을 지닌 인간의 존엄성이 어떤 사회적 합의나 제도에 의해서 포기되거나, 타인, 나아가 본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인간만이 “하느님의 영”을 지닌, 하느님을 닮은, 하느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석상희 요셉 신부 (교구 사목국 차장)

부부 이야기

부부 사랑의 시작

저희 부부는 혼인한 지 올해로 12년 되었습니다. 부부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가 그리 클 줄 혼인 초에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각자 살아온 고유의 삶이 부부라는 이름 안에 어우러지기에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혼인하고 얼마 되지 않아 첫 아이가 생겼고 저희 부부는 서툰 엄마 아빠 역할을 하기에도 바빠 부부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위안하며 살아왔기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저희 부부의 착각이었습니다. 대화 없이 서로의 속마음을 숨기고 겉으로 배우자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며 꼭꼭 참아오던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부 사이가 서서히 멀어지게 됐고, 마치 상처를 잘 치료하지 않아 덧나고 아픈 것처럼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배우자를 생각하면 따스함보다는 먹구름 같은 무거운 마음이 들던 어느 날, 성당 벽보에서 우연히 본 ME 주말 포스터가 생각났습니다.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니 밀저야 본전인데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보다야 나쁠 수가 없을 테니' 라고 위안을 삼으며 울며 겨자먹기로 ME 주말을 신청했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정보도 없이 참여한 ME 주말은 저희 부부의 삶을 되돌아보고 사랑을 결심하게 된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배우자의 아픔과 상처와 기쁨을 함께하려는 노력은 저희 부부 사이에 있던

두꺼운 벽을 서서히 허물게 하였고, 비로소 우리는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희 부부는 진정한 부부의 삶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받기만 하려고 했던 지난날이 후회되었고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마음을 다해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잘 들어주고, 깊은 속마음을 나누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는 대화도 많아지고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부부 사이가 냉랭할 때 눈치 보던 아이들도 서슴없이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무서웠다고 불편했던 마음을 표현할 때 '아! ME 주말을 가길 정말 잘했구나!'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제는 단단한 마음으로 어우러져 함께하는 우리 가족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기대됩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하며 충만한 기쁨을 만끽할 것이고, 힘들 때 서로를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두 손 잡고 힘차게 걸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용수 타대오 ♥ 이미지 나탈리아 부부 (ME 대구협의회)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에페 4,3)

독자투고

성모마리아어머니 학교 수료자의 날



지난 8월 11일, 교구청 대강당에서는 '엄마의 꿈'이라는 주제로 '대구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수료자의 날'이 열렸다.

대구대교구 가정복음화국(국장: 박상용 사도요한 신부)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70명의 수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태권 그레고리오 신부(차장)의 강의와 조별 이야기 나눔, 파견 미사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어머니학교가 그리웠다."라며 입을 모았다. 43기 수료생 최정희(제노비아·수성성당) 자매는 "어머니학교 과정을 통해 남편이 세례를 받게 된 은총이 떠올라 수료자의 날을 무척 기대했다."라며 환하게 웃었다.

고태권 그레고리오 신부는 강의에서 "꿈을 통해 내가 무엇이 되기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18기 수료생 노진화(크리스티나·월성성당) 자매는 "오늘 주제가 '친구 같은 어머니'에서 '어른으로서의 굳건한 어머니'로 변화를 시도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대구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는 2008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46기, 총 1,636명이 수료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가정에서의 어머니 역할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제공: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라떼는

성지순례



1988년 한티성지 묵상순례



1995년 한티성지 순교자 성월 야외미사

(제공: 교구사료실)

부모와 자녀 관계 (5)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 부모 마음의 이해 -

엄마 : “일찍 일찍 다니자~ 밤에 무서운 일이 너무 많아.”

딸 : “휴~”(엄마가 걱정하는 거 알지만 내가 알아서 해)

늦은 시간까지 실험실에 있어야 하는 일의 특성을 알면서도 딸의 입장보다 내 걱정이 앞서는 순간 필요한 말을 하려다 잔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걱정하는 이유를 설명하려 들면 어느새 긴 잔소리가 되고 맙니다.

사전에 잔소리가 ‘쓸데없이 또는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하는 자질구레한 말’이라 기술되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왜 자녀가 쓸데없다고 느끼는 잔소리를 할까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잔소리해야 한다면 어떤 고민을 해야 쓸모 있는 잔소리라도 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너를 위해서’라는 진심을 담고 부드러운 어조로 듣기 좋게 말을 해도 자녀가 잔소리라고 할 때면 딱딱하고 섭섭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진심이 왜 잔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지 무의식적 마음의 작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지요.

먼저 자녀를 나와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봐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신과 분리하지 못하고 동일시하면 부모의 불안과 걱정을 자녀의 것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과 해결을 위해 부모의 일방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자녀를 통제하려는 자동적 마음이 작동합니다. 이런 경우, 부모는 안정되고 해결이 되기까지 무의식적으로 지시와 통제적 말을 반복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부모 효능감입니다. 부모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부모 효능감이나 부모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 있으면 자녀가 요구

하지 않아도 필요 이상의 역할을 하려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일방적인 관여를 하게 되고 부모는 도움을 주지만, 자녀는 간섭으로 받게 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 이해와 자기 통찰을 선행할 때 비로소 자녀가 수용할 수 있는 잔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루카 2, 49)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녀를 나와 분리하고 믿어줄 수 있는 부모로 단단해 집시다. 그러기 위해 부모로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와 나눔을 통해 긍정적 수용과 효능감을 경험해야 합니다. 부모도 한 사람으로 지지와 위로, 그리고 배움으로 마음의 허기를 든든히 채우고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피로와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관리해서 누적되는 것을 털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돕고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안정될 때 자녀의 입장이 더욱 잘 고려됩니다. 오늘은 잔소리와 부모 마음을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면을 통해 자녀의 시각에서 잔소리로 들리는 마음의 작동까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잔소리와 자녀 마음’ 주제로 다시 만납시다. 스스로 채우고 잔소리 한번 멈추는 오늘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혜숙 에밀리아나
(대상관계심리상담사)



편지글

멋진 아들 아분디오에게

- 엄마가 수능 100일을 앞둔 자녀에게 -

더운 여름의 한 가운데 고3의 무게까지 지고 가려니 더 힘들지? 그래도 조그맣고 귀엽기만 하던 네가 어느새 자라서 인생의 첫 관문이자 큰 과제를 씩씩하게 잘 헤쳐 나가고 있는 듯해서 너에게 고맙고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네가 막 태어났을 땐 예쁘고 사랑스러운 마음만큼 ‘이 어린 생명을 어찌 키워갈까’하는 걱정과 책임감도 컸었다. 네가 어릴 땐 건강하게 자라고 애교와 사랑까지 전해주는 것을 보며 엄마, 아빠의 아들로만 생각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자라면서 다치기도 하고 시련, 실패, 방황 등 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는 질풍노도를 겪어가는 너를 바라보며 엄마 아빠에게 맡겨진 하느님의 아들임을 다시금 깨달았단다. 감사하게도 너는 보드랍게 엄마 아빠의 뜻을 존중하며 잘 지내주긴 했지만, 그것 또한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네가 고2까지 신학교에 입학하겠다고 예비신학교를 다닐 때도 엄마 아빠는 너의 의지와 하느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서 응원했었지. 고3을 앞두고 깊은 고민 끝에 일반 학과로 진학하겠다고 진로를 바꿨을 때도 다른 쓰임, 부르심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단다. 너의 판단으로는 신학교를 진학한다는 핑계로 고 1,2 동안 공부를 조금 느긋하게 했다는 반성이 진로를 바꾼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다. 예비신학교 담당 신부님과 입학하지 않겠다는 면담하

러 갈 때 엄마가 함께 따라가서 성모당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 기억하지? 그곳에서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느님의 자녀임을 너와 엄마가 잊지 않기를 기도드렸단다. 대학 입학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과정임을 너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어, 긴 너의 인생길에서 늘 엄마 아빠가 너의 뒤에서 기도하며 응원하고, 주님은 늘 너의 앞에서 이끌어 주실 테니 두려움 없이 나아가길 바란다. 사랑해~ 아들!

2022년 7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엄마가

남지민 체칠리아(동천성당)



아들 한솔찬 아분디오와 엄마 남지민 체칠리아 - 제주도 여행 중에

노년의 영성

사명감을 완성하는 성숙한 노년기

노년기는 자기 위치와 역할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감을 완성하면서 스스로 자기 삶이 자유로워지는 시기이다. 모든 생명체는 항상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방법과 과정을 위해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유아기, 청소년기는 배움을 위해서 움직이고, 작업하고, 학습하고, 활동과 반복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활용한다. 노년기는 젊은 시절부터 평생 생물학적, 정신적으로 경험하고, 배우고, 작업하고, 활동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터득하여 서로 열린 관계를 만들어 좀 더 겸손한 자세로 나눔을 즐기고, 협력하고, 보살핌을 실천하면서 조금씩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유롭고 성숙해진다.

노년기에 자신이 정신과 물질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자유로워지기에 성공한 삶을 살아가려면 평생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일하고, 작업하고, 끊임없이 배움을 즐기면서 모든 면에서 자신과 연결된 모든 것을 줄이는 단식을 훈련하여야 한다. 노년기는 일, 활동, 작업을 공유하고, 관계를 실천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사명감으로 생각한다면 노년기는 아침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태양처럼 바다물 속으로 가라앉는 석양도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들의 노년기는 석양처럼 아름답고 열정적으로 이글거리는 붉은 또 다른 성숙하고 영성적인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시기이다. 노년기까지 경험하고, 학습하고, 훈련하면서 매 순간 모든 것과 모든 관계를 중요시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더불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관계, 협력의 영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우선 비우는 훈련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다행히도 노년기는 다양한 경험과 배움으로부터 터득한 지혜로움, 너그러움과 같은 영적 에너지가 젊은 시기에 비해 훈련이 많이 되었기에 영성적 삶의 방식에 다가가기가 훨씬 쉬워진다.

노년기에 무르익은 영적 삶의 에너지는 우리들의 감각적, 지적, 경험적 세계를 넘어서 모든 존재에 대한 존엄한 관계, 경이로움, 겸손을 양육하는 강한 힘을 만들어준다. 잘 산다는 것은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영성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생명체와 하나 됨, 모든 것과 모든 것의 열린 관계를 만들어가는 행복하고 통합적 삶의 단계를 의미한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할 때 자신의 삶에 질서를 유지하게 된다. 노년기는 다른 삶의 단계보다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면 노년기는 에너지가 소멸해가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하는 수많은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황홀한 석양처럼 붉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조성자 세라피나

| 약력 | 전 대구가톨릭대학교 몬테소리대학원장
전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전 한국몬테소리교육총연합회장



활기찬 노년

“어머님의 하느님이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대구 감삼성당 노인 신앙학교-

제2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7월 24일)을 맞아 감삼성당(주임신부: 박홍도 치릴로)은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어머님의 하느님이 저의 하느님이십니다.”를 주제로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경주 양남성당에서 100여 명이 넘는 노인들이 참석한 감삼성당 노인 신앙학교를 개최하였습니다.

1박 2일 동안 바다가 보이는 양남성당 잔디광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노인 신앙학교는 주임신부 특강, 기도, 묵상, 성경퀴즈, 율동, 장기자랑을 통해 공동체 일원으로 소통하고 친교를 다지며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름 신앙학교라 하면 주일학교 행사라는 인식이 있음에도 노인을 위한 신앙학교를 개최한 박홍도 치릴로 신부는 “신앙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지나온 삶에 보람을 느끼는 좋은 추억과 영적 성장을 다지는 신앙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최하였으며, 어르신들이 가정과 젊은 세대, 공동체를 위한 자양분 역할을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신앙학교 교장인 홍호선(요셉) 형제는 처음 시도되는 노인 신앙학교에 기대 이상의 호응과 반응에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의 초고령화가 교회 구성원의 변화로도 이어지는 요즘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바라는 기대에 부응하며, 자칫 가정과 성당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자신감과 기쁨을 준 멋진 신앙학교였다는 참석자들의 소감처럼,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본당에서 개발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취재: 조태영 도미니코 | 살레시오 기자

※ 살레시오 기사는 평균 7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복음화국 기자입니다.



사진 제공 : 김동호 대건 안드레아

건강한 음식 건강한 노년

가지양념구이

재료: 가지 3개, 밀가루 1큰술, 녹말가루 1큰술, 식용유, 깨 조금, 국간장 2큰술, 고춧가루 1작은술 (케찹가능), 참기름 1/2 작은술, 깨소금 1/2 작은술, 다진 풋고추 1큰술, 다진마늘 1/2 작은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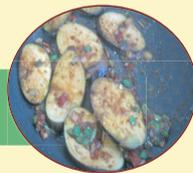
크기가 고른 가지를 골라 0.5cm 정도로 여섯썰기를 한다.

양념재료를 썰어 섞어준다.



썰어놓은 가지에 양념재료 반만 얹어 10분정도 재운다.

재워 놓은 가지를 구우면서 나머지 재료를 얹어준다.



깨를 부려 담아낸다.



Tip! 가지는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맛이 좋으며 안토시안 성분이 많아 항산화효과가 있다. 저열량인 가지는 다이어트에도 좋고, 들기름이나 참기름에 조리하면 맛이 더해진다

웹다임

하느님 나라, 천국은 어디일까요?(1)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 하느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천국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인가 봅니다. 아무도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없으신 것을 보면요.

어느 시골 본당의 신부님께서 미사 중 강론 시간에 하느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꽃들과 음악이 흐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아름다운 빛과 풍경들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며, 이런 아름다운 집을 무료로 받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이 새것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전기세, 수도 요금 모두 무료입니다. 100% 생수가 평생 무료로 제공되고, 건강보장은 100%, 사고 위험은 전혀 없는 곳입니다. 하느님 나라, 이런 천국, 어떠세요? 너무 멋지지요?

우리 모두 이곳에 가서 하느님과 함께 살고 싶지요?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 손들어보세요?” 거의 모든 어르신이 너도나도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신부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하느님 나라, 오늘이라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 손들어보세요?” 하시니 모두 고개를 숙이시면서 손을 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곳일까요?

수련기를 지내던 어느 날 수련소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알아들은 때가 있었습니다. 수련소는 하나의 집이며, 커다란 건물로서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수련기 동안은 수련소 밖으로 나갈 수 없고 그 안에서만 지내야 합니다. 수련소를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시기라고 했는데 그해 여름 수련자들이 휴가를 며칠 동안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련장 수녀님께서 “수련장과 수련자들이 함께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그곳이 바로 수련소가 됩니다”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하느님 나라 또한 이와 같은 것으로서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하느님 나라는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이지요.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곳이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50호에서 계속)

권경은 노엘라 수녀
(가톨릭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인터뷰

여든들의 인생 2막 - 김경순 미카엘라(소람상담소 심리상담사) -



김경순 미카엘라 선생님

대구대교구 소람상담소(소장: 김종섭 토마 신부)는 예수님 치유의 손길에 함께하고자 상담 전문가들(헬퍼)이 마음을 담은 모든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무료 상담소입니다.

가톨릭 금빛신문은 82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10년간 꾸준히 소람상담소에서 심리상담사로 봉사하고 있는 김경순(미카엘라, 율배성당) 자매를 찾아 인터뷰하였습니다.

어떤 계기로 봉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30년 동안 재직하던 직장을 은퇴하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고민이 무척 컸어요. 고민 끝에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렇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람상담소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내담자와 소통하시나요?

상담하면서 내담자를 통해 오히려 많이 느끼고 배웁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큰 문제가 있어 상담하러 왔다는 선입견을 품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분들에게 귀인이 되어주자는 사명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열정으로 일했지만, 나이가 들어감을 받아들이고 또 앞만 보던 젊은 때가 아닌 뒤도 돌아볼 줄 아는 여든들이 되니 하느님께 감사할 것이 많다는 김경순 자매는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남이 아니라 가족에게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정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도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는 어느 노래의 가사 말이 떠오르는 인터뷰였습니다. 소람상담소와 김경순 미카엘라 자매님을 응원합니다.

취재: 이종희 소피아 | 살레시오 기자

소람상담소는

- 1) 성인상담(대인관계, 부부, 가족 상담, 우울, 불안, 중독)
- 2) 아동·청소년상담(학습 및 진로상담, 학교 부적응)
- 3) 신앙상담
- 4) 주요 심리검사

상담 문의 및 예약 : 053)250-3100

산책로

경산자인의계정숲 & 삼정지



자 가 용 네비게이션 “경산자인의계정숲” “자인숲” (성모당 기준 1시간)
대중교통 버 스 : 용성1, 남산2, 399, 990
 (자인삼거리 정류장 하차 / 성모당 기준 1시간 30분)

가톨릭 금빛신문

대구 중구 남산로4길112 대건관 1층 가정복음화국

발행인 : 조환길

주간 : 박상용

편집 : 기획팀(총괄 김사훈)

대표전화. 053-250-3077

Fax. 053-250-3078

E-mail. dgfamily@dgca.or.kr

기사제보 및 문의. 053-250-3114

가정복음화국을
온라인에서도
만나보세요!



※ 평균 7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살레시오 기자단이 가톨릭 금빛신문과 함께합니다.

하느님의 축복 속에 아름다운 가정들!

2017년 4월 30일 창간 _ 매월 셋째 주일 발행

국내성지순례 (4)

인천지역 최대 순교터

- 제물진두 순교성지 -



인천 중구 항동에 위치한 제물진두(際物津頭) 나루터는 인천지역 최대 순교터로 외국 선박과의 접촉을 시도할 수 있어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거점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의 요인이 외적과 내통한 천주교 때문이라고 하여 대원군 정권이 천주교인들에 대한 공개 처형장으로 택한 곳입니다.

1868년 4월 20일에 ‘순교자들의 행적 증거자’ 박순집(베드로)의 이모 김씨와, 남편 손넉적(에드로), 사위 백치문(사도요한), 손자 등 4명이 도끼로 참수당하여 순교하였고, 1871년 5월 3일에는 이승훈의 증손자 이연구와 이균구 형제, 이승훈의 손자 이재금의 부인 정 씨와 손명현, 신자로 추정되는 백용석과 김아지 등 6명이 교수형으로 순교한 곳입니다.

또 이곳은 성 김대건 신부가 부제품을 받고 입국하여 1년여 간 조선교회의 사정을 둘러본 후 1845년 4월 사제품을 받기 위해 작은 목선을 타고 중국 상해로 떠났던 곳이자 1888년 7월 22일 샬트르 성바로 수녀회 소속 4명의 수녀가 조선에 첫발을 내디딘 곳이기도 합니다.

인천교구는 교구설정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성역화를 추진하여 2014년 5월 제물진두 성지에 15M 높이의 순교 기념 경당을 봉헌하였습니다.

성지를 순례하는 것은 성인들과 순교자들의 삶을 통해 하느님을 체험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성지순례 한번 떠나 봅시다.

취재·촬영: 박정자 엘리사벳 | 샬레시오 기자

가는길

- 자가용** 네비게이션 “천주교 제물진두 순교성지”(성모당 기준 4시간)
- K T X** 광명역 → 3001버스(인하대역 하차) → 인하대역(수인분당선) → 인천역 하차 (성모당 기준 3시간 50분)
- 고속버스**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 인천중합터미널 → 22번 승차(도원역 하차) → 15번 승차(중구청 하차) (성모당 기준 5시간 30분)



49호 가정미션: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이 함께 위령기도를 바칩시다.

탐방

이콘 연구소



이콘연구소(Icon studio, 범어공동주교좌성당)가 지난 3월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콘(Icon)은 그리스어로, 모상, 형상을 뜻하며 교리와 성경의 내용을 그림 형태로 표현한 성화를 말합니다. 연구소 지도자 정한주(오틸리아) 자매는 “이콘을 많은 분께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립 취지를 밝혔습니다. 설립 취지에 맞게 연구소에서는 상설 전시는 물론이고 이콘을 제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콘은 다른 회화와는 달리 교리와 성경에 관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린다’는 표현 대신 “말씀을 새기듯이 한 자 한 자 쓴다”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린다고 오틸리아 자매는 덧붙입니다.

상설 전시된 작품들도 있으니 가족이 함께 방문하여 교회의 전통 회화인 이콘에 대해서도 알고 신앙을 심화하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 화-목, 11-17시)

취재·촬영: 박영자 벨라벳다 | 샬레시오 기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세대별 의견 듣기 -

추석에 가족들이 꼭 모여야 할까요?

이 설문은 세대별 다양한 의식을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름에 대해 비판이나 부정적 시각은 삼가 주십시오.



설문기간 2022.8.21(주일) ~ 9.1(목)

응답방법 ① QR코드 접속 후 제출
② 아래 작성 → 사진촬영 → 카카오톡채널 '가정복음화국' 발송

49호 세대별 의견 듣기 설문

- 성별 및 연령대: 남 / 여 (세)
- 추석에 가족들이 꼭 모여야 할까요? ① 예 ② 아니오

48호 설문 결과

주제: 본인이 좋아하는 여행 형태는?

